

빅3에 몰린 시장... '빈익빈 부익부' 어찌할꼬

〈양의지·최정·이재원〉

FA 14명, 총 계약액 490억 원 기록 양의지·최정 100억대...이재원 69억 오버페이 논란 속 선수들 양극화 심화 선수 몸값 상한제 등 제도 개선 필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19년 프리에이전트(FA) 시장이 사실상 마감됐다. 5일 키움 히어로즈가 FA 내야수 김민성과 3년 총액 18억 원에 사인한 뒤 LG 트윈스로 현금 트레이드하면서 시장에는 투수 노경은만 남게 됐다. 그러나 노경은은 원 소속팀 롯데 자이언츠와 협상 결렬 후 미국행을 타진 중이어서 KBO리그 유턴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로써 지난해 11월 21일 문을 연 2019년 FA 시장은 14명이 총 490억 원의 계약액을 기록하며 마무리됐다.

●여전한 거품과 심화된 양극화 현상

KBO리그의 FA 시장은 2014년부터 급팽창했다. 2013년 11명이 총액 242억 6000만 원을 챙긴 시장은 2014년 15명이 523억5000만 원을 끌어모은 '전성기'로 탈바꿈했다. 2015년 720억6000만 원(20명), 2016년 766억2000만 원(21명), 2017년 703억 원(14명), 2018년 631억 5000만 원(19명)의 돈 보따리가 연이어 풀리면서 FA 시장은 일반 팬들과 격리된 그들의 세상으로 전락했다. 이 같은 추세에 비추면 2019년의 490억 원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오퍼페이' 논

란을 비켜갈 수 없다. 포수 양의지는 두산 베어스를 떠나 NC 다이노스로 옮기며 4년 총액 125억 원의 빅딜에 성공했다. 2017년 롯데 자이언츠와 이대호가 맺은 4년 총액 150억 원에 이은 역대 2번째 규모의 FA 계약이다. 최정도 SK 와이번스에 잔류하며 6년 총액 106억 원을 찍었다. 100억 원대 FA 부자가 2명이나 탄생한 것은 2017년에 이어 2번째다. SK와 4년 총액 69억 원에 계약한 이재원까지 포함한 상위 3명의 계약 총액은 300억 원으로 앞선 3년과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는다.

490억 원으로 시장 규모가 축소된 가운데 300억 원을 거머쥔 '빅3'를 제외한 FA들의 몫은 작아졌다. 한화 이글스와 계약한 송광민, 삼성 라이온즈에 잔류한 윤성환은 연봉보다 연간 옵션이 더 많은 기형적 계약을 맺었다.

●등급제 비롯한 제도 개선 시급

KBO는 지난해 9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선수협)에 4년 총액 80억 원의 몸값 상한제를 포함한 몇 가지 제도 개선안을 제시했다가 되파를 맞았다. 그러나 FA 계약의 균사를 빼기로 마음먹은 구단들은 2019년 FA 시장에서 중·소형 FA들을 대상으로 이를 관철시켰다. 몸통은 놓아둔 채 깃털만 뽑은 격이다. 'FA 이적 활성화를 통한 전력평준화'라는 FA 제도 도입 취지에 어울리지 않는 시장상황도 여전했다. 2020년 FA 시장이 서기 전까지는 KBO와 선수협이 공존의 지혜를 짜낼 필요가 있다.

정재우 기자 jace@donga.com



▶ SK 최정

● 2019 프리에이전트(FA) 계약 현황 (5일 현재)

선수	나이	포지션	계약팀	계약기간	총액(원)	옵션(원)
이재원	31	포수	SK	4년	69억	-
최정	32	내야수	SK	6년	106억	6억
송광민	36	내야수	한화	2년	16억	8억
이용규	34	외야수	한화	2+1년	26억	12억
최진행	34	외야수	한화	1+1년	5억	1억
이보근	33	투수	키움	3+1년	19억	8억
윤성환	38	투수	삼성	1년	10억	6억
김상수	29	내야수	삼성	3년	18억	4.5억
김민성	31	내야수	키움-LG	3년	18억	3억
박용택	40	외야수	LG	2년	25억	1억
김민철	33	투수	KT	2년	7억	3억
박경수	35	내야수	KT	3년	26억	6억
양의지	32	포수	두산-NC	4년	125억	-
모창민	34	내야수	NC	3년	20억	3억
노경은	35	투수	미국행 타진	-	-	-

* 김민성은 키움과 계약 후 LG로 현금 5억 원에 트레이드

● 최근 5년 프리에이전트(FA) 계약 현황 (5일 현재)

연도	총 계약액(인원)	상위 3명 계약 총액	비고
2015	720억6000만 원 (20명)	260억 원	윤석민 90억, 최정 86억, 장원준 84억
2016	766억2000만 원 (21명)	264억 원	박석민 96억, 김태균 84억, 정우람 84억
2017	703억 원 (14명)	345억 원	이대호 150억, 최형우 100억, 차우찬 95억
2018	631억5000만 원 (19명)	301억 원	김현수 115억, 손아섭 98억, 황재균 88억
2019	490억 원 (14명)	300억 원	양의지 125억, 최정 106억, 이재원 69억

* 2013년 11명 합계 242억6000만 원, 2014년 15명 합계 523억5000만 원



김민성 이적 시킨 키움 그래도 3루수가 넘친다

프리에이전트(FA) 김민성(31)의 최종 행선지는 결국 LG 트윈스였다. 키움 히어로즈는 공·수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친 핵심 자원 하나를 잃었다. 그러나 그 빈자리에 대한 걱정은 없다.

키움은 5일 "FA 김민성과 계약기간 3년에 계약금 3억 원, 연봉 4억 원, 옵션 매년 1억 원 등 총액 18억 원에 FA 계약을 체결했고, KBO 승인 절차를 완료한 5일 LG와 현금트레이드(현금 5억 원)를 단행했다"고 발표했다.

결코 무시할 수 없는 3루 공백. 그러나 김민성의 빈 자리를 채울 수 있는 이들은 벌써부터 고개를 서서히 들고 있다.

지난해 내야에서 전천후 활약을 펼친 송성문(23)은 현재 가장 주목받는 대체 후보다. 정규시즌 78경기에서 타율 0.313, 7홈런, 45타점, 35득점을 기록하며 일찌감치 눈도장을 받았다. 서건창의 수비 복귀로 2루수 경쟁을 펼친 김혜성(20)은 3루 수비도 가능하다. 여기에 일발장타를 갖춘 장영석(30) 역시 눈여겨볼 자원이자다.

무주공산이 된 3루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기존 백업들의 경쟁은 앞으로 더욱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키움은 이전부터 탄탄하게 갖춰진 두꺼운 '덱스차트'를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의지다. 대비책은 이미 스프링캠프 초반부터 준비됐다. 다가오는 실전에서 누군가가 최후선택을 받을 단계만이 남았다. 미래를 생각한 사전 만반의 준비가 현 시점에서 힘을 받는 이유다.

정재우 기자 award@donga.com

김민성 "LG는 동경하던 팀, 설레고 기분 좋다"

키움과 계약 직후 LG로 트레이드 "빨리 합류해 팀에 녹아들고 싶다"



김민성

계약을 마친 뒤 현금 5억 원에 LG로 이적한 것이다. 김민성은 5일 스포츠동아와 단독 인터뷰를 통해 그간의 과정과 앞으로의 각오를 공개했다.

-계약 축하한다.

"이렇게까지 늦어질 줄 몰랐다. 많은 분들

께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하다. 키움과 LG 구단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 잘 마무리돼 다행이다."

-밖에서 본 LG의 이미지는 어땠나.

"최고의 명문구단이다. 나는 서울 출신이고, 과거에는 LG의 팬이었다. 프로야구 선수라는 꿈을 이루기 전부터 동경했던 팀이다. 직접 유니폼을 입고 뿔 수 있다고 생각하니 설레고 기분 좋다. 부담도 있지만, 최선을 다해 목표에 다가가고 싶다."

-등록일수 1일이 부족해 FA 자격이 1년 미뤄진 게 아쉬울법하다.

"아쉬움이 없다면 거짓말이다. 하지만 유니폼을 입고 야구한다는 자체에 더 주목

해주셨으면 좋겠다. 개인적인 일로 아쉬운 것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고, 결과를 인정한다. 많은 분들이 걱정해주시니 오히려 내가 땀했다고 위로하는 입장이다."

-각오가 남다른데.

"LG에는 좋은 선수들이 굉장히 많다. 빨리 계약을 마치고 캠프에 참가해서 팀에 녹아들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 크다. 최대한 빨리 녹아들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준비하겠다."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업소용 전기솥밥기계 NEW IH-디지털아궁이

36개월 전액 할부 시스템으로 전국 방방곡곡에서 주문 선택



●● 인덕션 밥 조리기 업계 최초 압력식 초벌 기능 탑재

인덕션 밥 조리기 전문업체 (주)가죽에 에프에스가 세련된 디자인과 소비자 중심의 설계로 한층 업그레이드된 "2019 스마트 디지털 아궁이"를 출시했다. "디지털 아궁이" 하면 식당 운영하시는 분들이 먼저 알아봐 주시는 기계로 밥맛부터 품질, AS까지 뭐하나 빠짐없는 기계로 정평이 나왔다. 기존 가스 돌솥밥 기계보다 공간 차지가 덜하고 유해가스와 열기가 없어 주방, 홀을 비롯한 어디서든 전기가 있는 곳이라면 설치가 손쉽게 가능하다. 밥맛은 시골 가마솥에서 갖 지는 듯한 구수한 가마솥 밥맛을 내기 위해 압력 방식을 선택했으며 자동 온도 센서로 버튼만 누르면 1~4인분까지 자동으로 설정되어 완성된다. 또한 완성된 밥은 20분간 밥맛의 변질 없이 자동으로 보온이 되어 단체 손님, 예약 손님 등에 맞게 나갈 수 있다.

●● 2019 스마트 디지털 아궁이의 특징

이번 신제품 스마트 디지털 아궁이는 초벌 기능을 탑재했다. 주식회사 가죽에프에스는 창립 후 10년 동안 밥 연구에 매진한 결과 초벌 기능이라는 새로운 기능을 연구 개발했다. 초벌 기능은 솥에 여유만 있으면 적은 구수에서도 많은 양의 밥을 해내는 기능이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많은 구수의 기계를 사자니 부담스러운 분들에게 좋은 소식이며, 12구의 기계에서 점심시간에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200그릇 정도 된다. 2019 스마트 디지털 아궁이의 초벌 기능은 손님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시간인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전에 초벌 기능으로 밥을 해놓고 손님이 방문했을 때 3분만 데우기 기능을 활용하면 처음에 한 밥과 같은 밥을 내놓을 수 있다. 11시에 한 밥을 물 한 방울 넣지 않고 1시에 데워도 처음한 밥맛이 그대로 살아나는 게 특징이다. 이렇게 하면 인건비, 시간, 노동력

모두를 절약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업계 측 설명.



디지털 아궁이를 구매한 대전휴게소 상하행선 관계자는 "이전에는 많은 구수의 제품 구매를 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었지만 지금은 적은 구수로도 손님이 한꺼번에 많이 와도 바로 처음 한 밥맛으로 나갈 수 있어 많은 양의 밥을 하기에 좋은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 스마트 디지털 아궁이 간편구입 방법

제품모델은 8구, 10구, 12구, 15구, 16구, 20구, 25구 등 7가지 모델로 구비돼 있으며 업소에 맞게 구매하시면 되고 구매전 전화로 시연 예약을 하면 전문 매니저가 방문해서 밥맛, 기계의 사용법, 시스템 이해, 구매 조건을 들어본 후 설치예약을 하면 된다. 시연 시 대폭 할인이 있으며 설치 후 홍보를 위한 배너, 현수막, 온라인 홍보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런칭기념 전액할부, 36개월저리할부 등도 있으며 빌려 쓰는 렌탈시스템도 있다.

매출상승 보장!



스마트 디지털 아궁이 문의 1544-7871